

#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Saving for Children's College Education in the U. 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 사 차 경 옥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Instructor : Kyung-Wook Ch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arents who saved money for their children's college education and those who did no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to save. From 1998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a sample of 1,085 family households was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probability of saving for college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incomes and financial asset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saving for children's college education. The married couples who had higher education and larger household sizes were more likely to save.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was a significant positive factor in the probability of saving for college education

## I. 서론

대학 등록금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대학진학과

관련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기관인 The College Board(2002)는 대학 등록금이 연평균 6% 내외로 지속적인 인상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9년이 되면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130,000,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250,000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이를 가장 중요한 재무문제 중 하나로 지적해 왔다.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해 부모가 갖는 재정적인 부담은 그들의 자녀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가계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용 가능한 지불방법과 부담 가능한 액수는 가계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특성 및 자녀가 선택한 교육기관의 형태와 등록금 수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가계의 재무상담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Baum (1991)은 대출로 인한 부채의 부담을 지는 것 보다는 저축을 해서 대학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저축을 하면 이자를 획득할 수 있지만, 대출을 하면 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축만이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축은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이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저축을 택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목표에 도달하고 경제적 복지를 실현하며, 나아가 건전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Mullis, 1984).

선행연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가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저축하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저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많지 않고 (Lee, Hanna & Siregar, 1997; Todd and DeVaney, 1997; Xiao & Noring, 1994), 그 결과가 별로 일관적이지 못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계소득 외의 재정관련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 외에 금융자

산, 실물자산 및 가계 부채액을 재정관련 변인으로 정의하는 가운데,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들 사이에 재정적·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 부모들이 대학교육 비용 마련을 위한 저축을 결정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승하는 대학교육 비용 지불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저축행동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대학교육과 관련된 재정정책과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불을 위한 부모의 재무전략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은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 중 하나이다. 미국 교육부의 통계보고서는 1999년에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가진 부모의 60% 이상이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이나 대출 등의 실질적인 재무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하였다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0).

1980년도에 수집된 High School and Beyond Parent Survey 자료를 이용한 Olson(1982)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조사대상자의 40%가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저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득 증가를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부차적인 직업노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1984년 National Institute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3%의 부모들이 저축해 놓은 돈을 이용해서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겠다고 답했으며, 약 51%의 부모들은 현재 소득으로 충당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약 38%의 부모

들은 자녀 스스로가 대학교육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를 원하였고, 다른 38%는 자녀들이 장학금이나 기타 학자금보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golin, 1989).

또한, 미국 교육부에서 표집한 자료인 1987 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를 사용하여,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기여 수준을 연구한 Churaman(1992)에 따르면, 75%의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에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64%의 부모들이 소득, 저축, 대출 등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3%의 부모들은 오직 현재소득만을, 10%의 부모들은 저축만을, 3%의 부모들은 대출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가족의 자원제약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자금 보조정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iller와 Hexter (1985)는 중산층 가계들의 경우, 자녀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재무관리를 할 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외부의 지원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자원과 대학교육비용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보조 및 학자금 대출, 근로학생 고용프로그램 등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등 재무관리에 있어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 2. 대학교육비 지불을 위한 저축행동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재무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Lee, Hanna & Siiregar, 1997; Todd and DeVaney, 1997; Xiao & Noring, 1994).

일반적으로 저축행동은 가계소득, 자산수준

및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인-결혼상태, 생애주기 단계, 교육수준 및 인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Browning & Lusardi, 1996; Xiao, 1996). Hefferan(1982)은 저축행동이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도 소득 및 자산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저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계소득이고, 저축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산 보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Murphy와 Staples (1979)는 기혼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저축가능성과 저축액을 증가시키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율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 마련을 위해 행하는 저축행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King과 Noring(1994)는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남자이고, 결혼상태가 기혼이며, 연령이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가계들은 일반적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고, 소득이 높고, 부동산 소유분과 부채가 많으며, 순자산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Hanna와 Siiregar(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 인종, 교육수준 및 은퇴를 위한 저축 여부 등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백인 보다는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인, 고졸이하의 부모 보다는 고졸이상의 부모가, 그리고 은퇴를 위한 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계가 그렇지 못한 가계 보다 저축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eVaney와 Chien(200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주가 전업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리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hen과 Hanna (1996)는 부모가 자녀

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행동을 결정할 때는 가족구성원의 가치, 궁극적인 재무목표 및 단기적 재무요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위해 행하는 저축은 주택마련이나 은퇴계획 등 다른 재무목표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고 있지 못한 부모들의 경우, 그들이 만약 대부분의 재정자원을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면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해서 사용될 자원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Loewel, 1991).

Todd와 DeVaney (1997)는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 부담과 부모들 자신의 은퇴계획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은퇴를 위해 준비해 둔 저축액을 이전하여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불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이하의 부모들 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연평균 소득수준이 \$100,000 이상인 가계 보다는 \$50,000인 이하인 가계가 은퇴저축을 이전해서 자녀 대학교육비 지불에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행하는 저축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의 선행 단계로서 저축을 하는 부모와 하지 않는 부모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부모와 저축을 하지 않

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행하는 저축행동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미국 Federal Reserve Board가 후원하고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수집한 1998년도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이다. SCF는 미국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연금 등의 재정적 변인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매 3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개별 면접조사이다.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표본은 적어도 한 자녀 이상이 18세 미만인 가계로서, SCF 문항 중에서 “향후 5~10년 내에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큰 액수의 비용 지불이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1,085 가구로 제한되었다.

#### 3. 측정도구의 구성

종속변인은 이분변인으로서,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부모(=1)와 하지 않는 부모(=0)로 분류되었다. 이는 “향후 5~10년 내에 필요한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가계와 “그렇지 않다”로 답한 가계로 정의된 것이다.

독립변인은 크게 재정관련 변인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로 분류되었다. 재정관련 변인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가계 부채액 및 순자산을 포함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가구주의 결혼상태, 가구주의 교육수준, 인종, 자녀의 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을 포함하였다.

가계소득은 연간 세후 소득으로서, 모든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금융자산은 일반저축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각종 연금, 생명보험의 현재가치 등을 합산한 가치이다. 실물자산은 해당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자동차, 보트, 비행기 등 자산의 현재가치를 총합한 금액이고, 부채액은 주택 관련 부채, 신용카드 부채, 기타 모든 부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총합에서 가계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기혼이면 0, 그렇지 않으면(이혼, 사별, 별거, 미혼 등) 1로 가변수 처리하였으며, 인종은 백인이면 0, 비백인(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이면 1로 가변수화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교육년수), 자녀의 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은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 4. 연구모델 및 분석방법

종속변인이 이분변인이기 때문에 저축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

구의 모델인 로그오즈함수(log odds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x) = \log \frac{p}{1-p}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여기에서 p는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행동(Y)이 일어날 확률 [ $p = \Pr(Y=1 | x)$ ] 이고, x는 독립변인이며,  $\beta$ 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된 로그 오즈 계수(log odds coefficient)로서, 오즈비(승산비, Odds Ratio)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즉 18세 미만의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으며 향후 5~10년 내에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총 1,085 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재정관련 변인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립변인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	
(n=1,085)		
<u>재정관련 변인</u>		
가계소득	\$ 62,847.72	(218,287.50)
금융자산	\$ 169,009.59	(1,054,227.18)
실물자산	\$ 339,834.60	(1,109,508.23)
가계 부채액	\$ 30,122.69	(71,070.85)
순자산 (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액)	\$ 478,721.50	(998,975.30)
<u>인구사회학적 변인</u>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807	(74.38%)
사별, 이혼, 별거, 미혼	278	(25.62%)
가구주 교육년수	13.91	(2.72)
인종		
백인	829	(76.41%)
비백인	256	(23.59%)
자녀의 수	2.02	(1.01)
막내자녀 연령	8.08	(5.19)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연간 세후소득은 \$ 62,848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의 총합은 \$ 169,010, 실물자산의 총합은 \$ 339,835, 그리고 가계 부채액은 \$ 30,123이었다. 따라서 총자산의 가치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평균 \$ 478,72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74.4% (807가구)가 양부모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나머지 25.6% (278가구)는 사별, 이혼, 별거, 혹은 미혼모 등으로 인하여 편부모가족의 모습을 나타냈다. 가구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13.9년으로서 평균적으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육수준이었으며, 인종은 백인이 76.4%로 비백인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 23.6%) 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했다. 자녀의 수는 평균 2.02명이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은 8.1세 정도였다.

2. 대학교육비 저축가계와 비저축가계의 특성 비교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4.6% (375가구)가 향후 5~10년 내에 지불해야 할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재정적, 사회인구학적 특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하여 집단의 표본평균 또는 빈도를 구했으며, 두 집단 간 표본평균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는 t-test와 두 집단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chi^2$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재정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가계의 재정적 수준이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계 소득, 금융자산과 순자산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는 가계의 연평균 세후

<표 2> 대학교육비 저축가계와 비저축가계의 특성비교 <sup>a</sup>

독립변인	저축가계 (n=375)		비저축가계 (n=710)		t / $\chi^2$
재정관련 변인					
가계소득	\$ 72,730.65	(8,878.83)	\$ 51,104.43	(7,601.20)	3.85**
금융자산	\$204,236.80	(81,899.16)	\$136,002.98	(62,051.81)	2.37*
실물자산	\$378,975.12	(100,775.43)	\$299,986.10	(87,325.72)	1.76
가계 부채액	\$ 34,211.81	(3,813.70)	\$ 26,184.28	(3,939.49)	1.33
순자산 (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액)	\$549,000.11	(69,759.30)	\$409,804.80	(61,367.83)	3.28**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348	(92.80%)	459	(64.65%)	
사별, 이혼, 별거, 미혼	27	(7.2%)	251	(35.35%)	27.36***
가구주 교육년수	14.74	(0.12)	13.48	(0.11)	7.91***
인종					
백인	332	(88.53%)	497	(70.00%)	18.67***
비백인	43	(12.47%)	213	(30.00%)	3.21**
자녀의 수	2.35	(0.06)	1.98	(0.04)	9.34***
막내자녀 연령	9.98	(0.24)	7.07	(0.19)	

a 평균 (표준오차) 또는 빈도(퍼센트)가 기록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소득은 \$ 72,731이고,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의 소득은 \$ 51,104로서 저축을 하는 집단의 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저축을 하는 가계(\$ 204,237)가 하지 않는 가계(\$ 136,003)보다 높은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실물자산과 가계 부채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순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자산변수가 저축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Hefferan, 1982; Varian, 1987)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구주의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인종, 자녀의 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 등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재 기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종별로는 백인가계가 비백인(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 가계 보다 저축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저축을 하는 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14.74년)이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13.48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자녀의 수는 저축을 하는 가계가 2.35명,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가 1.98명으로서, 저축을 하는 가계의 자녀의 수가 유의하게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저축을 하는 가계(9.98세)가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7.07세)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축율이 낮다는 선행연구(Murphy & Staples, 197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많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대학교육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축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3.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저축을 하기로 결정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고, 여기에는 로그오즈계수(log odds coefficien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및 오즈비(또는 승산비, odds ratio)가 제시되어 있다. 로그오즈계수는 오즈비(승산비, odds ratio)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오즈비(odds ratio)는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저축행동 결정의 오즈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1보다 크면 오즈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오즈를 감소시킨다. 즉, 오즈비가 1로 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즈비로부터 1을 빼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독립변인이 1 단위 변할 때 오즈의 변화량 증감분을 퍼센트로 알 수 있다 (DeMaris, 1992; Pampel, 2000).

가계소득과 금융자산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가계소득이 \$1 증가할 때 그들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하는 확률은 16% 가량 증가했으며, 금융자산이 \$1 증가하면 12%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행동이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소득 및 자산변인과 밀접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Avery & Arthur, 1991; Hefferan, 1982; Varian, 1987)를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가족생활주기에서 중요한 재무자원을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비 부담을 위한 저축 또한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양쪽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지(기혼), 그렇지 않은지(이혼, 사별, 별거, 미혼 등)에 따라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위한 저축결정의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등으로 인해 가구주가 편부모인

<표 3> 대학교육비 저축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괄호안은 준거집단)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상수	-5.967***	(0.761)	
<b>재정관련 변인<sup>a</sup></b>			
가계소득 (ln) <sup>b</sup>	0.163*	(0.064)	1.157
금융자산 (ln)	0.131***	(0.036)	1.123
실물자산 (ln)	-0.010	(0.026)	0.990
가계 부채액 (ln)	0.034	(0.056)	1.034
<b>인구사회학적 변인</b>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0.077*	(0.031)	0.926
가구주 교육년수	0.079*	(0.037)	1.076
인종 (백인)			
비백인	-0.065	(0.196)	0.938
자녀의 수	0.455***	(0.118)	1.425
막내자녀 연령	0.228***	(0.055)	1.220
-2 Log Likelihood	1232.05		
Chi-square (df=9)	170.07***		

a 순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액)은 다른 독립변인들과 선형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모델에서 제외함

b 재정관련 변인에는 자연로그를 취함

\* p < .05; \*\* p < .01; \*\*\* p < .001

경우, 그들이 저축을 하는 확률은 가구주가 기혼상태를 유지하는 부모들 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편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확률이나 저축액 수준이 낮고, 기혼상태에 있는 부부들은 맞벌이를 함으로써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저축 가능성 및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행동 결정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선행연구 (St.John & Noell, 1989)를 지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인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Steelman과 Powell (1991)은 고학력 부모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녀의 수는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증가할 때마다 대학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42.5%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교육비용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내자녀의 연령 또한 저축가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막내자녀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대학교육비 부담을 위한 저축가능성은 22%가량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저축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율을 보인다는 결과와 상통하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교육비 마련에 대한 재정적인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행하는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선행 단계로서 저축을 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재정적·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을 하는 가계와 하지 않는 가계의 특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가계소득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순자산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인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사별, 이혼, 별거, 미혼 등) 보다, 백인이 비백인(아시안, 히스패닉 등)보다 저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는 가계의 경우,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 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았고, 자녀의 수가 많았으며, 막내자녀의 연령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저축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일 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행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대학 등록금과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가계소득과 금융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할 때, 저소득층

가계들에게는 대학교육이 점점 더 비싼 선택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가, 재정정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 제안자 등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전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계의 자녀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학자보조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할 확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에 대해 부모가 갖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대학교육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들의 재정적인 책임은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모들만이 전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기관들이 공적인 측면에서 그 부담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행해지는 저축행동은 다양한 재정적 요인과 가족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행동이 모든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처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저축행동을 통해 대학교육 비용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매달 일정한 액수를 저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저축결정 뿐 아니라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녀의 대학교육비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행하고 있는 저축행동을 파악하여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Avery, R. B. & Arthur B. K. (1991). Household saving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4): 409-432.
- 2) Browning, M. & Lusardi, A. (1996).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 1797-1855.
- 3) Churaman, C.V. (1992). How families finance college education. *Journal of Student Financial Aid*, 22(2), 7-21.
- 4) DeMaris, A. (1992). Logit modeling: Practical application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086. Newbury Park, CA: Sage
- 5) DeVaney, S. A. & Chien, Y. (2002). Children's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savings goal.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4(1). 64-70.
- 6) Hefferan, Colien. (1982). Determinant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47-55.
- 7) Lee, S., Hanna, S. & Siregar, M. (1997). Children's college as a saving goal.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33-36.
- 8) Loewel, R.D. (1991). Crisis planning for college: A retirement problem.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4(1), 22-28.
- 9) Margolin, J. B. (1989). *Financing a college education*.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10) Miller, S. E., & Hexter, H. (1985). *How middle-income families pay for college*. Washington, D.C.: Division of Policy Analysis and Research,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11) Mullis, R. J. (1984). *The dynamics of household sav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12) Murphy, P. E. & Staples, W.A. (1979). A modernized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12-22.
- 13)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0). *The Condition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 14) Pampel, F. C. (2000). *Logistic regression: A primer*.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132, Newbury Park, CA:Sage.
- 15) Steelman, L.C. & Powell, B. (1991). Sponsoring the next generation: Parental willingness to pay for higher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6), 1505-1529.
- 16) St. John, E. P. & Noell, J. (1989). The effects of student financial aid on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 analysis of progress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minority enroll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0(6), 563-581.
- 17) The College Board (2002). *Trends in college pricing*. Washington, DC: The Washington Office of the College Board
- 18) Todd K. J. & Devaney, S. A. (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25-32
- 19) Varian, H. R. (1987). *Intermediate Microeconomics (Third Ed.)*.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20) Xiao, J. J & Noring, F. E. (1994). Perceived saving motives and hierarchical financial ne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1), 25-44.